

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



경자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.

우리가 지난 일은 아쉬움으로 가리고 닦아올 일은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돌이켜보면 지난 2019년은 정말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

국제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, 한일 경제 전쟁, 북핵문제 등과 국내적으로는 수출 부진과 출렁이는 부동산시장 등으로 경제성장률·실업률·물가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정치·사회적으로는 진영 간,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.

이러한 한해의 뒤에 오는 2020년의 세계 경제전망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OECD는 2.0%로 전망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2.4%로 2019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.

이렇게 한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외면하다시피 해오든 건설시장을 살리려고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고무적이지만 이제 는 정부의 시장 환경 조절에 따른 부침 속에서 함께 출렁거리는 연약한 우리의 건설(CM)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.

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지그지글러 교수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사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였습니다.

우리는 항상 긴 안목에서 내일을 설계하기보다는 당장 내년 계획에 집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. 항상 변화를 전제로 하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 단기 계획이 하나하나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.

우리는 크게 시장과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단기 계획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

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협회는 경쟁력 배양은 각자의 몫을 더 크게 봐서 후순위로 하고 항상 시장을 집중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

구미 선진국들의 협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구성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

또 다른 면에서 근래 국내의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.

제도와 일상적인 기능, 업(業)과 기능 등 많은 분야가 파편화되어 참여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호의 불신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.

이러한 때에 정부는 항상 시장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, 우리 업계는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의 입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영리하고 꾀 많은 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지혜를 모아 금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, 우리 CM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한국CM협회 회장 배 영 휘